

2025년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

|읽|기|자|료|



| 이 읽기자료는 제22회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20,21기 아동총회 의장단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QR코드에 접속하면 올해 주제와 관련한 아동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목차|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가요?	1
제22회 대한민리아동총회 주제 및 슬로건	4
제22회 대한민리아동총회 키워드(세부주제)	9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10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교육 및 여가 문화생활	16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목소리와 정보 이용	22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28
어린이를 위한 제25호 일반논평	34

| 일러두기 |

■ 읽기자료 마을로 정보 여행을 떠나기 전, 아래 내용을 미리 챙겨 두세요! (구성과 주요 내용)

- 제22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읽기자료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올해(2025년) 주제인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아동의 권리가 낯설더라도 꼼꼼히 읽어 보면, 아동도 소중한 권리의 주인임을 알게 될 거예요. 디지털 세상과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아요. 디지털 환경이 무엇인지,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지 ‘제22회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특히, 다른 친구들과 **토의를 시작하기 전**이나, 혼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키워드별로 정리한 아동 권리와 관련된 글(기사 요약문)을 참고하면 관련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정보 가득한 ‘읽기자료’ 마을 곳곳에서 귀여운 친구들이 기다려요. 마을 곳곳의 정보 탐색과 생각 정리를 돕는 길잡이가 되어 줄 거예요.



■ 읽기자료 마을 정보 여행 가이드 (활용 방법)

- 읽기자료를 읽기 전에, **표지의 QR코드에 접속해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투표로** 전해 주세요.
 - 올해의 아동총회 주제인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 아동의 기본권 중 어떤 권리가 더 위협받고 있는지, 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투표할 수 있어요.
-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본문 속 “QR클릭”
- 키워드는 아동총회(지역대회/전국대회) 참여 아동 여러분이 조별로 회의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안건으로 제안하는 세부 주제입니다.
 - 읽기자료에는 **키워드별로 관련 있는 기사를 4개씩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또 그림이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형식으로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해 두어,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간중간 활동지(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를 두었어요.
 - 읽기자료를 모두 읽는 것이 어렵다면 **활동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 읽기자료를 간단히 활용할 때는, 4~8p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활동하세요.

- ① 먼저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기본권을 알아보고,
- ② 디지털 환경은 무엇이지, 좋은 점(긍정적인 영향), 고쳐야 할 나쁜 점(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 ③ 마지막으로 8p의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로 활동을 마무리해요!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소중한 존재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를 담고 있지요. 특히 아동을 권리의 주인(주체)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가입국 모두의 동의로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1991년에 이 약속에 서명(비준)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서명한 국제 조약이랍니다.



대한민국아동총회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더 알아보아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지고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겠다고 밝힌 국제적 약속이에요!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두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2조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내용(43~54조는 정부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협약은 아동이 생명, 건강, 교육, 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각 국가는 이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협약에 담긴 모든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용 버전)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3. ‘일반원칙’과 ‘기본권’이란 말을 들어 보았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동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협약 속 많은 권리 조항은 종종 다음 4가지의 일반원칙, 기본권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원칙은 협약 상의 모든 권리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권은 헌법의 기본권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협약의 여러 권리가 나무의 가지(또는 열매)라면, 기본권은 그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발달권 중에는 놀 권리, 여가권, 문화를 즐길 권리 등이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1)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권리협약 제2조)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으며, 항상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협약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과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생명은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고,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 (협약 제12조)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갖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용)



(청소년용)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동영상으로 배우기

일반원칙은 모든 협약의 조항에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2) 기본권(4대 권리)



생존권

아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SI보조간호사 #원격진료
#디지털안전 #디지털자극
#디지털육아방치 #디지털방임



보호권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불링
#스마트폰중독



발달권

아동이 교육을 받고, 건강한 여가와 놀이를 즐겨 잘 발달할 수 있는 권리

#사이버중독예방(마음건강)
#정보제공 #정보교육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일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접근권
#디지털참여권
#아동참여플랫폼

협약 체결국가는 5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데, 이때 여러 권리를 비슷한 묶음(클러스터)으로 정리해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묶음을 8개에서 11개로 늘렸어요. 새로 생기거나 바뀐 권리 묶음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 '장애아동', '보건', '생활수준', 아동권리와 환경' 등이예요.



주 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

슬로건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복한 그날까지,
아동 권리 Update!**

“ 제22회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주제인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이 낯선가요?
디지털 환경을 일상에서 늘 만나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요?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행복한 그날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



■ 디지털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상업 활동과 교육 및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편히 이용하게 되었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확인하고, 학교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으며, 여가 시간에는 숏폼이나 SNS, 메신저를 즐기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 녹아든 디지털 환경은 네트워크,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가상·증강 현실, 인공지능(AI)과 이를 활용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디지털 환경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서부터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환경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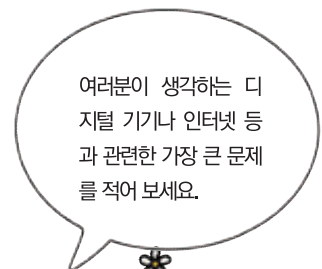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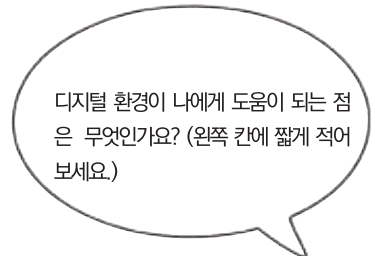
● 디지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자기주도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또래 친구들과 디지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지요. 또 온라인 토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 디지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환경은 한편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아동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이나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허위 정보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지요. 디지털 중독과 혐오 표현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불법 데이터 수집과 복잡한 이용약관, 보호자의 과도한 감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큼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부족한 문제도 있지요. 또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장벽 때문에 일부 아동은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기도 합니다.



■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환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환경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한편, 디지털 환경의 여러 위험은 아동 권리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신체·정신 건강 위협, 보호자의 디지털 육아 방식, 위험한 챌린지의 확산으로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은 아동의 **보호권**을 위협합니다. 디지털 기술 및 환경에 대한 미비한 교육과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는 아동의 **발달권**을, 어려운 약관과 같이 아동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세계 각국의 아동 NGO 단체들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을 줄이고, 아동이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호 중심의 접근에 치우쳐 아동의 발달과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책이 제때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아동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톺아보기'
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다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사회적 차원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회적 노력으로는 디지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인프라 확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있어요. 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 노력으로는 아동 스스로의 안전 의식 강화,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참여 노력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며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합니다.

■ 디지털환경에서도 아동 권리의 소중함을 안내하는 ‘제25호 일반논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25번째 일반논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채택했어요.

이 일반논평은 디지털 환경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속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담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전 세계 아동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69차례의 워크숍을 갖고, 709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답형 응답, 창의적 글쓰기, 그림그리기, 오려붙이기, 시나리오 기반 활동 및 그룹 토론 등을 진행하여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경험을 정리하였어요. 그리고 이를 모두 8가지 영역(① 권리로서 인터넷 접근 ② 정보 ③ 표현·정체성·문화 ④ 여가와 놀이 ⑤ 프라이버시 ⑥ 부모의 역할 ⑦ 보호 ⑧ 건강)으로 구분해 정리하였고, 이러한 아동들의 의견은 일반논평 제25호로 구체화되었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모두 필요해요. 특히 차별이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제25호 일반논평
(다른 나라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요!)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또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주제를 정한 뒤, 국가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해설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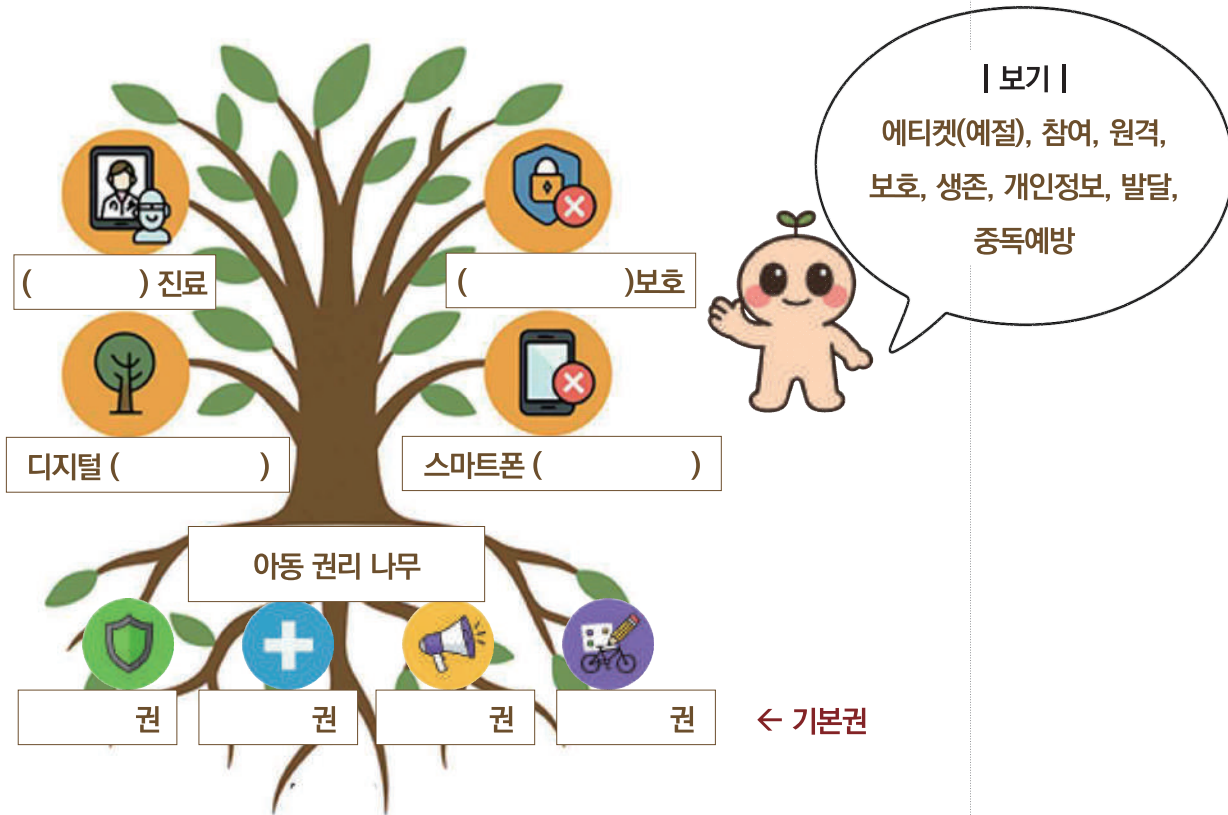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1. 아동 권리와 디지털 환경을 지킬 아래 나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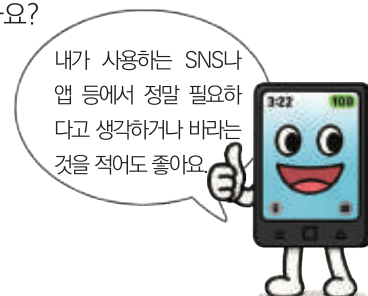
(그림 속 빈칸을 완성한 뒤에는 관계가 있는 뿌리와 열매를 연결해 보세요)



2.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점수를 매겨 보세요.(1~5점)

① 내가 느끼는 디지털 안전 점수는?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불링 등에 대한 불안함 등)	점
② 내가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의 만족도는? (기기의 편리함, 정보 접근 수준 등)	점
③ 내가 느끼는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 보장 점수는?	점

3. 여러분이 5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 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

슬로건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복한 그날까지,
아동 권리 Update!**

키워드(세부주제)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존권 | 보호권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발달권 | 놀 권리(여가권)



■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목소리와 정보 이용

참여권 | 정보접근권



■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존권, 보호권)

우리가 아는 **생존권**은 아동이 살아가는 것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뜻하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을 조금 더 넓게 설명했어요. 아동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아동은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권리** 또한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좋은 음식과 보건 시설을 이용받을 권리**도 있어요.

보호권의 경우, 아동이 위험하지 않게 살아가고,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실제 생활이 아닌 디지털 공간과 디지털과 관련한 일상에서도 이 권리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를 괴롭히는 것, 도박이나 유해 정보를 몰래 알려 준다고 유혹하는 행동, 우리의 개인 정보를 허락도 없이 몰래 빼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도 모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나쁜 것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 뼉 더 살펴보기 | 일반논평 제25호의 관련 내용



일반논평 제25호의
더 많은 내용은 ↑

- 국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14조)
- 디지털 기기 사용은 아동 간에, 또는 아동, 부모, 보호자 간에 나누는 다정한 대화와 다정한 관계 등을 위협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돼요. (15조)
- 국가는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디지털 환경 속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잘 지켜지는지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아야 해요. (36조, 37조)
- 국가는 사이버 괴롭힘, 위협, 검열, 정보 침해, 디지털 감시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해요.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도 존중받고 보호되도록 해야 해요. (60조, 76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은 잘 보호되고 있을까요?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 스스로 자신을 또는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더 잘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글을 읽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아동 성착취 범죄 방지 위한 온라인 안전 장치 만들자” (베이비뉴스. 2024.11.11.)
(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60)



♥ 505 likes

#사이버공간 이 그림처럼 위험한 줄 몰랐는데 ... 충격이야!
└ **#디지털범죄** 로부터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해! 특히 우리 아동들은 더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 **#채팅앱** 얘기 들어? 우리반에 OO이도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성착취 등의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SNS나 채팅 앱을 통해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신고한 뒤에도 플랫폼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 역시 많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고자(아동이나 보호자)가 조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검색어 및 닉네임 설정을 제한하고, 단체 대화방을 운영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NS와 채팅 앱 심지어 온라인 게임까지 사이버 공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어두컴컴한 뒷골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정부와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도 인터넷(인스타그램, SNS, 메타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2. 인터넷이 안전하지 못한 또는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인터넷에서 나쁜 사람들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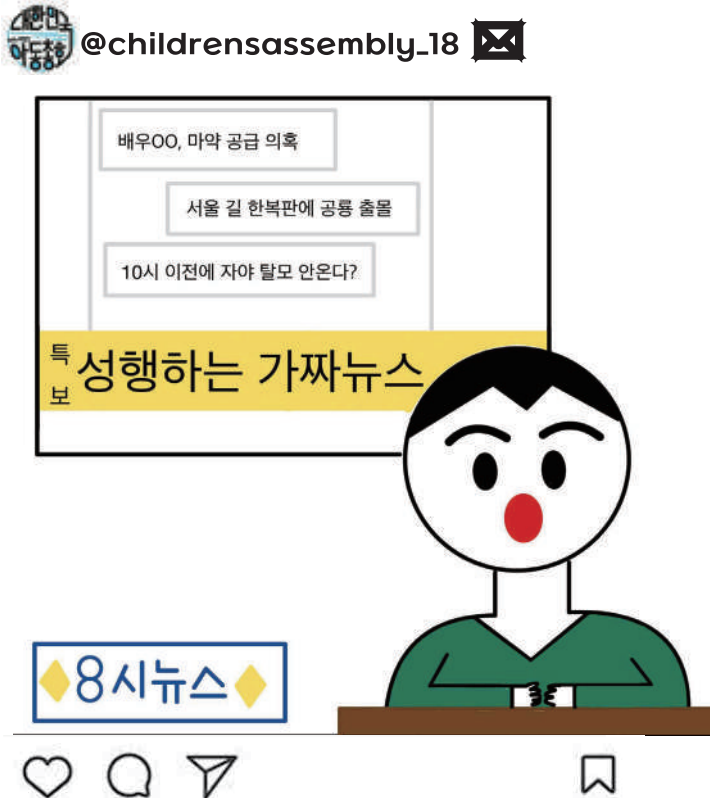
4.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부나 기업(인터넷 회사)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 :

기업 :



■ 아동·청소년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온라인 환경 만들어 주세요 (베이비뉴스, 2025.01.13.) (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00)



♥ 1120 likes

#가짜뉴스 인 줄 모르고 진짜처럼 보여서 다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이제부터는 그냥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

└ #디지털리터러시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 #온라인예절 이 정말 중요한 시대야...SNS에서 내가 단 댓글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댓글을 달아야지!

디지털 공간은 멀리 사는 친구와 이야기할 수도,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게 해 주어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만큼이나 위험도 함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놓는 개인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도 찬성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아동이 유해한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여론은 다시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로 온라인 공간에서 마치 진실처럼 퍼져요.** 디지털 환경 속의 허위 조작 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이 정보를 올바르게 판별할 능력을 기르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열은 피하되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해 아동에게 유해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구별법이 있나요?

2) 여러분들도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를 접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나요?

3) 디지털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4) 아동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온라인 속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 (베이비뉴스, 2024.12.09.) (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9)



❤ 601 likes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이름이랑 생일만 적어도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니...
└ **#디지털권리**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 나도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 아동들은 모두 권리의 주체야.
└ **#틱톡**을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재미있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무섭긴 하지만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난, 얼마 전에 모르는 **#사이트접속** 한 이후로 낯선 번호로 **#스팸문자**가 오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만 3세 이상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92%**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제 **어린 아동들도** 각종 SNS나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졌어요.

실제로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앱 중 하나인 틱톡은 국내에서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무단 해외 유출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프라이버시 위험은 현실로 다가온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아동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 왼쪽 아동(사진)은 AI로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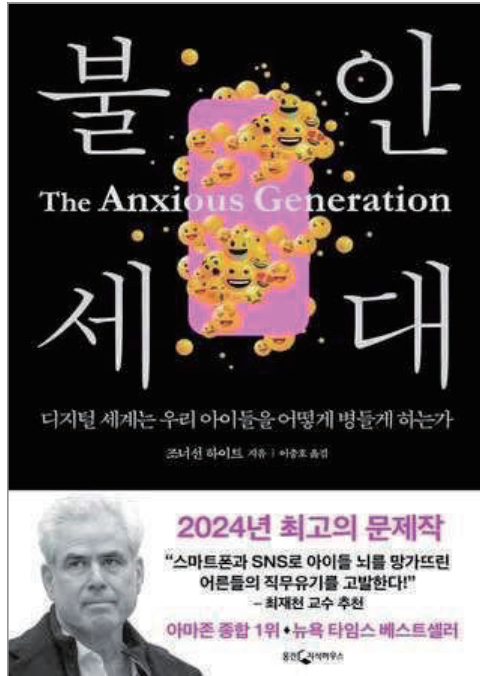
- 1) 여러분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
- 2)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나요?
.....
- 3)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 4) 아동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인터넷 회사)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 스마트폰·SNS에 망가진 아동기...불안·우울증 대폭 늘었다 (한겨레. 2024.08.08.)
(hani.co.kr/arti/culture/book/1152950.html)



@childrensassembly_18



❤ 812 likes

#불안세대 라는 책, 나도 봤어. 우리가 '불안 세대'라니. 뭔가 슬프고 무서운 말이야. 그냥 뛰어놀기만 해도 재미있었던 때가 그리워...

└ #스마트폰중독 이라는 말이 이제는 내 얘기가 된 것 같아.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데, 안 보면 심심해. 어찌지?

└ #해결방법 은 무엇이 있을까?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어.

세계적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불안 세대'란 책(사진)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Z세대(1996년 이후 출생)의 정신 건강과 아동 발달 단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어요. 현재의 아동은 바로 그가 말하는 '불안 세대'고요.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와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어요. 즉, 가상 세계와 관련한 보호자의 관심은 너무 적은데, 현실에선 너무 심하게 보호한다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며 아동기는 '놀이 기반'에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전환되었고, 그는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끊기고, 수면 부족, 주의집중력 약화, 중독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여자 아동의 경우, 여러 이유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만 14세 이전에는 기본 휴대폰만 제공하고, 만 16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며,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제안해요. 또 놀이 등으로 정신적 회복과 자립을 돕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 등 전 세계가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해본 적 있나요?

2)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나요?

3) 온라인에서의 소통(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4) 스마트폰 사용이 여러분의 일상 생활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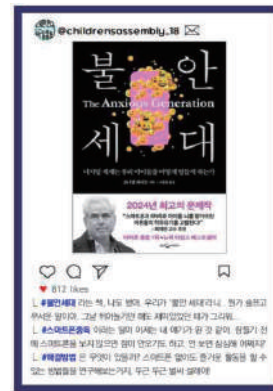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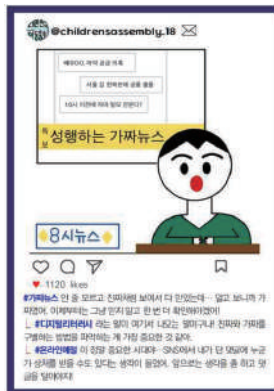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 아래 질문을 읽고, 빈칸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거나 O,X표를 넣어 주세요.

1. 처음 본 기사가 있었나요? (위의 빈칸에 O,X를 표시해 주세요)
2. ‘공감’하는 순위를 적어 보세요. (만약, 키워드와 관련해 기사 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3.에 적어 주세요)

기사



1

2

3. 기사 요약문을 읽고 키워드와 관련해 느낀 점(문제)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해시태그 : #

#

#

기사 제목 :

한줄 감상문 :



글쓰기가 어렵다면,
덧글이나 해시태그,
기사 제목을 고쳐 써
도 좋아요.

4.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참고해 나의 요구나 아이디어 등을 정리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내가 제안하는 대안에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발달권, 놀 권리)

발달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발달권은 **아동이 개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이기도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조금 더 넓고 쉽게 정리하였어요. **아동은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문화 활동과 놀 권리 즉 여가권이 있어요.** 이를 포함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잘 키워 갈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도 발달권이지요.

이제는 디지털 환경도 아동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요. **온라인 수업이나 학습 앱을 통해 교육을 받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해요. 이처럼 아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배우고, 쉬고, 즐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한 뼘 더 살펴보기 | 일반논평 제25호의 관련 내용



일반논평 제25호의
더 많은 내용은 ↑

- 국가는 아동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해요. (3조, 20조)
- 디지털 놀이나 앱, 인터넷 플랫폼 등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상업적 이해 관계 즉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12조, 35조, 38조, 40조)
-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기술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개개인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해요. (100조, 101조, 104조)
-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가와 놀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107조, 108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발달권과 여가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요?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디지털 환경에서 발달권과 여가·문화생활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글을 읽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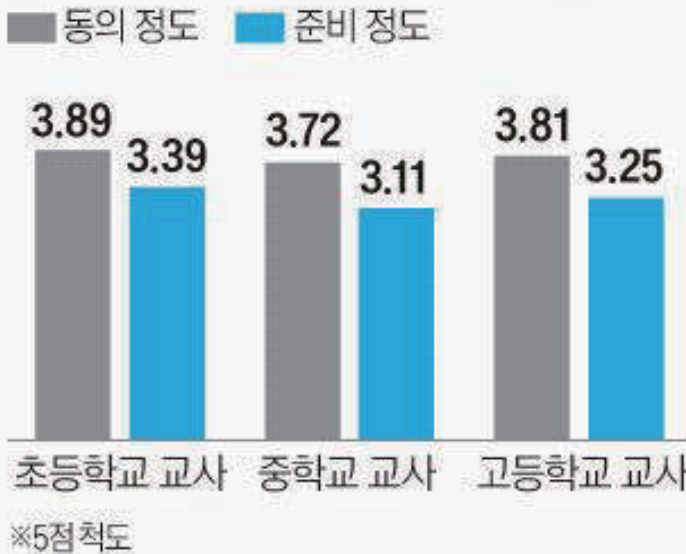


■ AI 활용 수업 “긍정적”...적용은 “아직” (한국교육신문. 2024.02.23.)
(hangyo.com/news/article.html?no=101021#google_vignette)



@childrensassembly_18

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준비 정도



♥ 1210 likes

#미래학교에서는 정말 로봇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시대가 올 거야!
└ #AI를 활용한 #디지털윤리라고 들어봤어? AI가 전부 정답은 아니래, 질문을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고 들어.
└ #선생님도고민중이라고 하셨던 말이 떠올라.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수업을 할 때 콘텐츠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는데 내 태블릿이 고장이 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선생님들은 AI 수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국 초·중·고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AI 활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점수로 매긴 결과, 평균 3.83점(5점 만점)이었어요. 이 중 초등학교 선생님(3.89점)과 35세 미만 선생님(3.98점)이 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I를 수업에 사용하는 선생님은 많지 않았어요. 조사에 참여한 선생님의 10명 중 6명꼴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초등 47.5%, 중등 42.6%)이며, 기기 관리의 어려움과 새로운 도구 학습의 번거로움도 주요 원인이었어요.

AI를 사용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수학·영어에서 활용했고, 사용하지 않은 선생님의 경우, 체험 활동에서 써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선생님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 문제, 콘텐츠 부족 등은 걱정이 라고 이야기했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 1) 여러분은 AI를 활용한 수업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
- 2) AI 활용 수업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3) AI 활용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4) AI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 “디지털 시대, 기술 중요한데…한국은 더 좋은 대학 위해 공부만 강요” (한겨레. 2019.09.26.)
(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1129.html)



@childrensassembly_18

디지털 시대 성공의 길은?

“미래의 꿈 ≠ 대학 입시”



♥ 422 likes

디지털은 아동이 미래를 스스로 그려가는 공간!

└ #디지털시대 #내꿈은내가정해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 공감 100%야!!

└ #디지털교육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나도 코딩이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대학만 바라보는 어른들은 너무 답답해.

└ #존중해주세요 #미래교육 “우리들은 애완견이 아니다”란 말 진짜 명언이잖아? 엄마!! 이 기사 좀 읽어 주세요.!

미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기술이 발전한 디지털 시대에는 성공의 길이 다양해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명문대 입시 중심의 교육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직접 도전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어른들은 이를 믿고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므로,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믿음, 존중, 독립, 협력, 친절’과 ‘사랑, 공감, 감사, 긍정’이 진짜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시작임을 이야기했어요. 또 “아이들은 애완견이 아니다.”라며, 아이를 통제하지 말고 믿고 존중할 때 진짜 미래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요?

2)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3) 디지털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딥페이크 논란 속 '디지털 시민성' 학습... '팩트 체크' 방법도 배워 (삼다일보, 2024.10.10.)
(samd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46)



@childrensassembly_18



♥ 1204 likes

디지털에서 내 꿈을 펴도록! 디지털 교육

└ #디지털아동권리교육 이 필요해. 디지털에서 아동권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들어봤어? 우리 학교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했어. 덕분에 허위 정보를 가려내고 사이버 윤리도 알게 되었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에 맞춰 제주도 교육청은 처음으로 지역 학생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공개적으로 기획해 보급했어요.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활동을 통해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웠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 윤리를 배우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도 가능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 1) 여러분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
- 2)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
- 3) 만약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없다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을까요?
.....
- 4) 아동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기 위해 정부나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이슈 진단] “디지털 교육격차로 교육불평등 심화”
(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11)

(한국NGO신문. 2021.2.3.)



@childrensassembly_18



♥ 0 likes

디지털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아요...

└ **#디지털교육격차**가 너무 힘들어. 공부도 기계도 다 다르니까 더 불공평한 느낌이 들어! 친구들이랑 차이가 커져서 속상해.

└ **#아이들의디지털권리**에 대해 실감하는 요즘이야. 태블릿이 너무 느려서 수업할 때마다 튕기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아.

└ **#원격수업** 할 때 **#디지털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어. 내 기기가 너무 낡아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기능을 쓸 수가 없을 때 위축이 되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학생의 2명 중 1명꼴로 ‘원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거나 ‘디지털기기가 낡아 원격 수업에 방해를 받는다’고 해요. 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도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5명 중 1명은 학습과 관련해 궁금한 점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차이에 따른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적지 않아요. 교육부는 EB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일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법과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국가는 모든 아동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지원해야 해요. 디지털 기술로 맞춤형 교육이 발전할 거란 희망도 있지만, 오히려 격차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를 해결할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세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은 원격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2) 원격 수업 중에 아동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3) 디지털 교육 격차가 확대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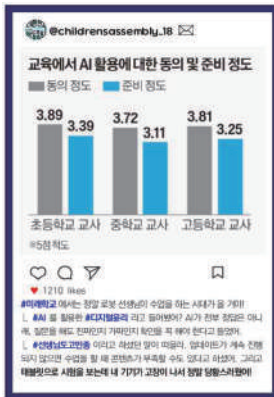
4)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 아래 질문을 읽고, 빈칸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거나 O,X표를 넣어 주세요.

1. 처음 본 기사가 있었나요? (위의 빈칸에 O,X를 표시해 주세요)
2. ‘공감’하는 순위를 적어 보세요. (만약, 키워드와 관련해 기사 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3.에 적어 주세요)

기
사

1

2

3. 기사 요약문을 읽고 키워드와 관련해 느낀 점(문제)을 아래 형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키워드 : # # #

기사 제목 :

한줄 감상평 :

4.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참고해 나의 요구나 아이디어 등을 정리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내가 제안하는 대안에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목소리와 정보 이용 (참여권, 정보접근권)

참여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설명을 살펴볼까요.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물론 어른들은 이러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답을 해 줘야 하지요. 또한, 자신의 판단에 도움을 줄 여러 정보를 자유롭게 얻고, 이를 이용할 권리도 참여권에 포함되지요.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의 주체랍니다!

한 뼛 더 살펴보기 | 일반논평 제25호의 관련 내용



일반논평 제25호의
더 많은 내용은 ↑

-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16조)
-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및 교육을 개발할 때 국가는 모든 아동의 원하는 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국가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과 소통하여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도록 해야 해요. (17조, 18조)
- 디지털 환경은 아동이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요. 또 공공기관 정보를 포함해 아동이 다양한 이슈와 권리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51조)
- 국가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해요. (59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은 어떤 모습으로 참여권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의 글을 읽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아동의 디지털 참여권 보장돼야"...아동기본법 제정 토론회 (연합뉴스. 2022.8.18.)
(yna.co.kr/view/AKR20220818119300530?input=1195m)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이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담은 **아동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어요. 즉,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디지털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토론자들은 **아동이 차별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참여권은 특히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 등 아동의 여러 권리에 대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요.



♥ 0 likes

디지털은 아동이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공간!

↳ **#참여권침해** 얼마 전에 누리소통망에서 내가 남긴 게시글이 영문도 모르게 삭제된 적이 있었어. 이것도 참여권 침해일까?

↳ **#참여권보장** 아동을 디지털에서 보호하려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데, 참여권과 관한 논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 1) 여러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
- 2)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
- 3)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 4) 아동의 디지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 "디지털 환경 속 아동 친화적 시스템 조성" (전남일보. 2024.07.22.)

(jinilbo.com/74294084272)



♥ 0 likes

안전하고 쉬운 디지털 세상, 우리도 원해요!

└ **#아동친화적플랫폼** 은 꼭 필요한 것 같아! 거기에선 우리도 악플을 안 달고, 나쁜 콘텐츠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 **#이해가쉬운설명서** 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걸 텐데. **#약관** 은 너무 어려워.

└ **#악성댓글** **#자동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우리들도 걱정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디지털 환경도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 같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의 아동 권리옹호단은 ‘온라인세이프티’ 활동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아동들은 회원가입 약관이 너무 어렵고 길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선정적인 웹툰이나 악성 댓글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와 콘텐츠를 만들고, 연령별로 적절한 광고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특히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댓글 필터링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아동 눈높이에 맞춘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아동들 스스로도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지 않기, 악성 댓글을 달지 않기 등의 노력을 약속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어른들과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은 회원가입 약관이나 온라인 콘텐츠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 있나요?

2) 여러분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다고 느끼나요?

3) 디지털 환경이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4)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 미래를 향한 마케팅, 아동 동행 기업의 책임과 성장 (포춘코리아. 2024.02.05.)
(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장난감이나 놀이시설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작된다면 아동의 불편함은 줄고,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국내의 한 자동차 회사는 윤리 선언을 발표하고,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제작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해요.

또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의 경우, 2018년부터 전 세계 아동과 부모의 놀이 인식을 연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경영과 마케팅 전략에 반영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이 덕분에 여성 과학자 세트나 휠체어를 탄 미니 피규어 등을 상품으로 내놓았다고 해요.

디지털 환경에선 기업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친화적인 광고나 제품을 본 적 있나요?

2) 여러분은 대부분의 기업 마케팅이 아동 친화적이라고 느끼나요?

3) 기업이 아동을 고려하지 않는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4)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유럽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정책 (한-EU연구협력센터. 2023.05.05.) (k-erc.eu/wp-content/uploads/2023/05/)

@childrensassembly_18

How do EU do?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정책

Better internet for kids+ 전략을 중심으로

2년마다 아동 주도 평가!

0 likes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지키자!

└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다가 느낀 불편을 게시판에 적었는데 얼마 후 편리하게 바뀐 적이 있었어. 이것도 **#참여권** 이라고 볼 수 있을까?

└ **#참여권** 에 생각보다 많은 권리들이 포함되는구나. 일반논평 덕분에 우리 아동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

유럽연합(EU)은 2022년 5월 아동을 위한 디지털 정책인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etter Internet for Kids+·BIK+)'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전략은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권한을 부여받도록 보장**하고, 나이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특히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아동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2년마다 BIK+에 대한 아동 주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해요. 한편, 202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여학생의 33%, 남학생의 2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에서 불쾌한 콘텐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BIK+의 '+'는 지난 2012년 유럽연합이 처음 채택한 BIK 정책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 1)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불쾌한 콘텐츠를 본 적 있나요?
.....
- 2)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동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
- 3) 디지털 환경이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
- 4)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 아래 질문을 읽고, 빈칸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거나 O,X표를 넣어 주세요.

1. 처음 본 기사가 있었나요? (위의 빈칸에 O,X를 표시해 주세요)
2. ‘공감’하는 순위를 적어 보세요. (만약, 키워드와 관련해 기사 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3.에 적어 주세요)

기
사

1

2

3. 기사 요약문을 읽고 키워드와 관련해 느낀 점(문제)을 아래 형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키워드 : # # #

기사 제목 :

한줄 감상평 :

4.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참고해 나의 요구나 아이디어 등을 정리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내가 제안하는 대안에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많은 기회와 이점을 주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정보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동마다 디지털을 이용하는 모습이 달라요. 특히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아동이 있어요. 디지털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아동도 적지 않아요.** 이러한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디지털 환경의 기회와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해요.

한 뼉 더 살펴보기 | 일반논평 제25호의 관련 내용



일반논평 제25호의
더 많은 내용은 ↑

- 모든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국가는 디지털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4조, 9조, 11조)

-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동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또래와 친구가 되거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각별한 도움을 주어야 해요. 또 학교에 나오기 어렵거나 교외 지역에 사는 아동이 원격 학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해요. (10조, 52조, 89조, 90조, 102조)

- 디지털 환경에는 장애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나 차별적인 메시지를 담은 글들도 많이 있어요. 국가는 장애 아동을 비롯해 모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차별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조기술 등도 제공해야 해요. (25조, 92조)

-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렵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 공유와 기술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58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가와 사회, 기업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취약계층 아동 ‘디지털 학습 격차’ 이어 ‘건강 정보 격차’ 우려 (부산뉴스, 2024.5.8.)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0818184788677)



@childrensasembly_18



사회경제적 취약아동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조사 결과

1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3.15
2 인터넷으로 어디를 검색해야 원하는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3.04
3 인터넷으로 어떻게 건강 정보를 찾는지 알고 있습니까	3.1
4 건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3.41
5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나에게 맞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3.16
6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을 때, 이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까	2.62
7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정보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2.69
8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건강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3.03

*5점 만점 중 평균. 자료: 인제대 간호대학 박지영 교수팀



0 likes

#건강정보격차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찾다보니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기도 했어. **#경제적으로어려운아동** **#사회경제적취약아동**

└ **#건강은모두의권리** 잦아! 지금부터라도 **#건강불평등**이 해소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찾도록 노력해 보자!

└ **#특별한지원이필요한아동** 에겐 **#디지털환경** 이 **#교육** **#건강**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줄 거란 생각이 들어, **#정부지원** 이 필요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아동의 디지털 학습 격차가 건강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인제대 박지영 교수 연구팀이 부산 취약아동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40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온라인의 건강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정보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식습관(2.9점), 운동(2.8점)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점수도 낮았어요.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이처럼 건강 불평등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해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허위 조작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요.

특히 연구 팀은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 있나요?

2)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것 같나요?

3) 디지털 학습 격차가 심해지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4)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느린학습아동’ 디지털 문해력 게임하듯 키워주니 하하호호 (한겨레, 2022.7.7.)
(hani.co.kr/arti/area/yeongnam/1049980.html)



느린 학습 아동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구시교육청, KT, 지역아동센터 등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평균 학습 능력 이하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린 학습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이에요. 태블릿 PC를 활용한 시각적 학습 자료와 게임 형태의 활동은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요. 또한, 카카오톡 예절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고,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퇴직 교사들의 1대1 맞춤형 교육은 또 다른 강점으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며, 개별 아동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은 느린 학습 아동들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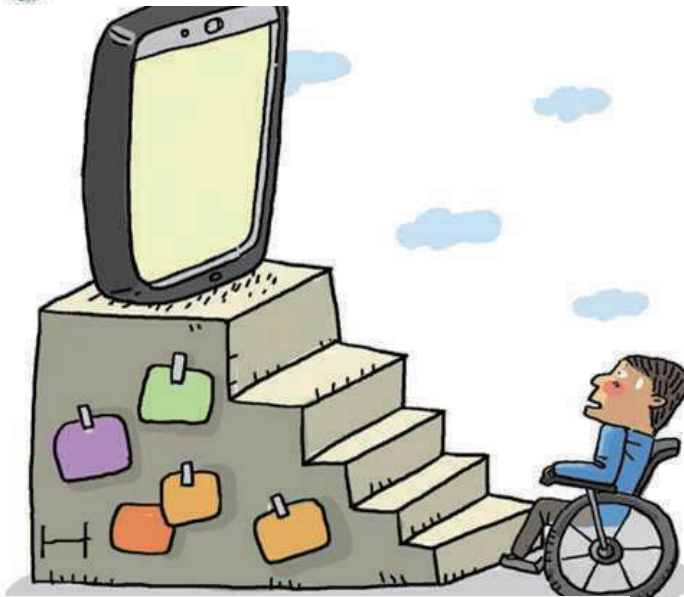
- 1) 여러분은 디지털 환경이 친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
- 2)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 3)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느린학습아동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
- 4) 느린학습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보급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 장애인 웹 정보접근성 58.8점 불과 (세계일보, 2017.10.12.)
(segye.com/newsView/20171012005722)



@childrensassembly_18



♥ 0 likes

모두를 위한 디지털, 함께 만드는 세상!

└ **#디지털장벽** 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읽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버튼을 페이지마다 만들 수는 없을까?

└ **#장애아동의목소리** 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기본이 되는 세상!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야!

└ **#느려도관찰아 #접근성도권리야**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인터넷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느리지만 나도 **#디지털매체**를 활용하고 싶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997개 국내 웹사이트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접근 수준이 50 점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친교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근성도 60점대밖에 되지 않았지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에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2016년 정보접근성 실태진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방송·언론, 민간법인 997개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평균 점수는 58.8점(100점 만점)이었어요. 분야별로는 특히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복지관 웹사이트 79개 중 3분의 2가 넘는 29개 복지관이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조사 대상 의료기관 65개 중에서도 절반 정도(33개)의 의료기관이 60점 미만이었답니다.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1) 장애인 아동이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2) 여러분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장애인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가요?

3)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 아동이 불편해할 만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장애인 아동이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다문화·장애 아동 품은 디딤캠프... "디지털 전문가 될래요" (한국경제. 2023.10.18.)
(hankyung.com/article/2023101878861)



다문화 및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새싹 캠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문화 및 장애 아동들에게 인공지능(AI) 및 코딩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대상 캠프에서는 러시아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드론 체험 및 자율주행자동차 코딩 교육을 받으며 높은 흥미를 보여요.

이천 다원학교에서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코딩 심화 과정이 운영되었어요. 김영교 다원학교 교사는 “난도가 높아졌는데도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어 한다.”며 캠프의 효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어요.

■ 아동이 만드는 반짝이는 생각! 반짝이는 아동 권리!

- 1) 여러분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 있나요?
.....
- 2) 다문화·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 있나요?
.....
- 3) 다문화·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요?
.....
- 4) 다문화·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 아래 질문을 읽고, 빈칸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거나 O,X표를 넣어 주세요.

1. 처음 본 기사가 있었나요? (위의 빈칸에 O,X를 표시해 주세요)
2. ‘공감’하는 순위를 적어 보세요. (만약, 키워드와 관련해 기사 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3.에 적어 주세요)

기
사

1

2

3. 기사 요약문을 읽고 키워드와 관련해 느낀 점(문제)을 아래 형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키워드 : # # #

기사 제목 :

한줄 감상평 :

4.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참고해 나의 요구나 아이디어 등을 정리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내가 제안하는 대안에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

영국의 아동단체로, 이 문서의
영어 원본을 만들었어요. ↓

 **5RIGHTS
FOUNDATION**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2021)의 영문판 **아동 친화** 버전을 한글로
번역하였어요.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의 감수를 거쳐, 영문판 내용과 같이 디지털
세계에 아동의 권리를 아동의 목소리로 안내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쉽게 쓴

디지털 세상에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의 아동용 자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1989년), 유엔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유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어요.
그 해에 (흔히 www로 불리는) 월드 와이드 웹이 발명되었습니다. 즉,
협약을 작성한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이 아동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미처 몰랐다는 뜻이지요.

이제 협약을 관리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이 축약된 버전은 11~17세
아동들이 작성하여 다른 아동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인 196개국
비준한 협정입니다.

***비준** :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인 조약이나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어요.

시작하며

전 세계 아동은 학교, 놀이 문화, 정보 수집,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며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공평하게 제공되고,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일반 원칙

아동 권리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차별 금지

아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아동 최상의 이익

어른(정부 및 기업 포함)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든, 자신보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해요.



생존 및 발달

아동은 해로운 간섭 없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해요.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아동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존중받아야 해요.

모든 아동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다른 지원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이해와 경험을 하게 되어 더 광범위한 일을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진화하는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세계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제공할 때, 나이를 잘 헤아려야 해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는 약속(규칙)을 만듭니다.

정부 공무원, 기업, 부모, 교사 및 어린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어린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 줘야 합니다.

기업이 아동의 권리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약속(규칙)을 어긴 조직이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아동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세 소년, 네팔:

**“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는 방에 앉아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동은 정보, 자유,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보 접근

아동이 온라인에서 찾는 정보는 거짓이 아니고, 관련이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해요. 단,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요.

표현의 자유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아동과 기업, 어른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생각의 자유

기업이나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모임의 자유

아동은 친구들과 만나고 시간을 보내며, 모든 환경에서 지역사회에 속하는 것을 즐기고 싶어 해요. 정부나 기업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사생활 보호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생활이 필요해요. 부모, 학교, 정부, 기업,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도 포함돼요.

출생 등록

아동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정보는 아동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를 해치거나 불공정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17세 소녀, 모로코:

**“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권리 대부분을 알고 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은 정치적 폭력, 자해(스스로를 상처 주는 것), 섭식 장애(잘 먹지 못하는 문제), 자살, 괴롭힘, 그리고 성적 폭력이나 성적 접촉과 관련된 이미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동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와 지원 장소가 있어야 해요.



가족 생활

정부는 모든 아동이 가정이 있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디지털 세계는 아동의 필요를 처음부터 잘 챙기고, 가족과 보호자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장애를 가진 아동

정부와 기업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막이나 음성 지원 같은 도움은 따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어야 해요.



건강과 행복한 삶

건강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해요. 아동의 행복한 삶을 해치는 디지털 서비스는 금지되어야 하고, 아동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교육, 놀이, 휴식

디지털 도구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돕고,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아동은 디지털 세계의 원리와 이익의 흐름을 알고 싶어하고, 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해요.



기업과 정부

온라인 기업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하며, 아동의 정보나 사진이 돈벌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아동은 나이에 상관 없이 똑같이 보호받아야 해요. 디지털 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해요. 정부는 아동과 어른이 디지털 세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끝내며

지난해(2020년) 5Rights 재단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도와 아동의 권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27개 나라 아동과 청소년 수백 명의 의견도 받았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2021)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아동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된 안내문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 문서에는 아동들이 전해 준 생각과 제안들이 모두 담겨 있으며, 특히 아동들이 강조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 **아동**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원합니다.
- **정부**는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모**는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 그들은 **아동을 위해 아동이 직접 작성한 버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12세 소녀, 크로아티아: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니까,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해요.”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세상 만들기
**Building the digital world
that young people deserve**

info@5rightsfoundation.com 5rightsfoundation.com



2025년 | 제22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읽기자료

주제 |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장

기획 대한민국아동총회 제20·21기 의장단 | 집필 및 캐릭터 디자인 김세은 문규돈 방재현 우지안 윤석종 장연수 전수빈 (가나다 순)
집필 및 자문 박진경(대한민국아동총회 제10기 의장단·現 TF위원), 강민경(제8기 의장단·現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사업부 주임)
총괄자문 윤석빈(CRC Lab 부소장)
발행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CRC Lab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아현동) 고려아카데미텔 | 1622호
전화 02.831.1930
홈페이지 : www.kocconet.or.kr

※ 이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경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